화순 동복에 '알뜰 주유소' 첫 선

조은·한영 다음주 오픈…광주·전남 9곳 전환 신청

농협직영 광주 4곳 전남 80곳 연내 알뜰주유소 전환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추진 중인 '알뜰 주유소' 가 전남에서도 선을 보인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화순지역 2곳의 주유소가 '알뜰 주유소'로 문을 연다.

전남지역 첫 알뜰 주유소인 조은주유소와 한영주유소(화순군 동복면)는 다음 주 오픈을 목표로 현재 간판교체, 페인트 작업 등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을 한 광주·전남지역 개인소유의 주유소는 광주 2곳, 전남 7곳으로 모두 9곳이다. 이들 9곳은 석유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 80여 곳도 올해 안에 NH알뜰 주유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광주 4곳, 전남 57곳이다. 여기에 농협 전남본부는 전남지역 23개 농협 주유소를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총 84개 농협주유소가 알뜰 주유소로 운영된다.

알뜰주유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기름값 안정과 정유사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동구매해 저렴하게 공급받아 각종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을 1ℓ 당 50~100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석유공사는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적발실적이 없고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이 없는지 등의 사전 심의를 거쳐 알뜰주유소를 선발한다.

한편 정부는 농협 주유소 450곳,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50곳, 자영업자 주유소 200곳 등 활용해 이달 안에 알뜰 주유소 250곳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700곳으로, 오는 2015년까지 1만3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

'얌체' 외국계 은행

고금리 가계대출 치중…사회공헌은 꼴찌

외국계 은행들이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금리가 토종 은행보다 훨씬 높은 가계대출에 치중,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권 대출은 기업대출 582조6000억원(55%), 가계대출 445조1000억원(42%)이다. 기업대출 비중이 훨씬 컸다.

외국계 은행은 전혀 딴판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가계대출이 26조9000억원으로 기업대출(8조9000억원)의 세 배에 달한다. 한국씨티은행도 가계대출(14조3000억원) 규모가 기업대출(9조6000억원)보다 훨씬 많다.

SC은행과 씨티은행의 가계대출 시장 점유율은 각각 6.1%, 3.2%에 달한다. 기업대출은 고작 1.5%, 1.7%에 불과하다.

외환은행도 2002년 론스타에 인수되기 전 기업대출 시장점유율이 5.7%에 달했다. 지금은 4.1%로 쪼그라들었다.

외국계 은행의 대출금리는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지난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씨티은행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은 4.07%, 외환은행은 3.52%다. 전체 평균(2.97%)보다 훨씬 높다.

대출 규모가 국내 대형 은행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외국계 은행들이 지난해 대규모 순익을 낸 것은 이러한 '고금리 장사' 덕분이었다.

외환은행의 지난해 순익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씨티은행은 3분기까지 4253억원, SC은행은 3625억원을 거둬들였다. 떼돈을 벌었음에도 공적인 기능은 최대한 회피한다.

은행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주는 신용보증기금에 지난해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외국계 은행의 사회공헌액은 시중은행 중 최하위권이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 상반기 신입 690명 채용

농협중앙회는 상반기 신입 직원 690명을 뽑기 위해 16~22일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지원서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분야는 은행, 정보기술(IT), 보험이며 학력, 연령, 전공 등 자격 제한은 없다.

은행 분야는 지역사업 활성화와 지방대 우대를 위해 지역 단위로 채용인원을 할당해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4월 중 발표한다. 농협은 하반기에도 6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손목위 프랑스의 우아함

(주)광주신세계 2층 시계편집매장 갤러리어클락에서는 루이까또즈 시계 신상품을 선보여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루이까또즈 시계는 프랑스 귀족의 장인정신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강조한 우아함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여 22만원~32만원. 〈신세계백화점 제공〉

면 도래지 목포, 日 수탈 거점으로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8〉

전남방직 서울이전 반대운동 ①

토질·기후조건 적지…시험재배 대성공

日 제국주의 근대공업화·침략 기반돼

▲ 백의민족의 옷감 목화

우리 목화의 역사는 멀리 삼국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나 목화의 재배와 배틀의 방직술이 일반화 된 것은 문익점(1329~1398) 시대로 보는 것이 근래 학계의 정설로 굳어지는 듯 하다. 조선 태종조에 와서는 무명베가 일본에 수출되었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상인들이 한약제나 유황 등을 가져와 무명베로 바꾸어 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무명베는 14세기 중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백여년동안 우리민족의 옷감으로서 그 주종을 이루어온 셈이다. 우리민족을 가리켜 흔히 백의민족이라고들 한다. 이는 흰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터와 저자거리는 온통 흰옷천지였다. 이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옷감이 바로 무명베다.

▲ 근대화의 혁명적인 산업소재 면화

배달민족의 살갗이라고 할만한 무명베의 원료인 면화(棉花=木花)는 동서를 막론하고 근대산업사회의 공업화를 유발시킨 신소재였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전 유럽을 휩쓸며 근대화를 이끌었던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실상은 영국에서 비롯된 길쌈의 기계화가 그 단초가 되었고 그 길쌈의 소재가 다름아닌 바로 이 면화였다. 따라서 이 면화야말로 근대산업사회와 자본주의를 유발시킨 혁명적인 산업소재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근대공업화와 침략의 기반이 되었던 것도 섬유공업이고 이 섬유공업의 산업소재 또한 바로 이면화였다. 그리고 일본섬유공업의 젖줄인 면화의 공급기지가 한국이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한국면화의 주산단지가 바로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광주·전남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광주·전남의 면화가 일본섬유공업을 일으켰고 그 섬유공업이 일본제국주의와 동아시아침략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전남은 일제식민지수탈의 제 1표적이 되었음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 육지면의 도래지 목포

면화가 우리고장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02년 7월 목포에 부임한 일본영사 와카마츠(若松兎三郞)에 의해서다. (朴?洪저 '광주 1백년') 그는 전임지가 중국의 면화주산지인 사시(沙市)였던 관계로 면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임하자마자 목포의 기후조건이나 토질이 미국의 육지면(陸地棉) 재배의 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육지면은 최고품질의 다수확종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원래 다습한 토양 때문에 육지면재배가 불가능했고 이로 말미암아 미국과 중국에서 비싼 원면을 전량수입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와카마츠공사의 육지면 재배적지 발견은 일본의 조야를 흥분시켰으며 즉각 기술진의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바로 그해에 목포 고하도(高下島)에서 육지면 시험재배에 착수했다. 초기의 시행착오가 있기는 했으나 고하도의 육지면시험재배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깃점으로 일제는 재배지역을 목포, 무안, 영산포, 나주, 광주지역과 이어서 전남전역으로 확대했다.

▲일본에 독점권 내준 면화 협약

이에 앞서 일제는 1905년 3월 한국산면화 수탈만을 위한 면화재배협회를 결성했고, 이 협회는 1906년 들어서자마자 한국면업주식회사를 설립, 이를 앞세워 그해 3월 씨앗의 보급 및 면화의 수매, 채종에 이르는 면화제배의 모든 권한을 송두리째 일본이 독점하는 비통한 한일면화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씨앗은 일본씨앗만 사야되고 수확된 면화도 일본에만 팔되 수매가는 주는 대로 받아야만했다. 또 씨앗 유출을 막기 위해 면화농가가 임의로 씨앗을 탈수없게 규정해 놓았다. 마치 한반도 이남전역이 일본의 거대한 개인 농장이나 다름없었고 한국의 면화 농가는 노예나 진배없는 셈이었다.

위 증 (언론인)

光銀, 신용+체크 'K-TWINS 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카드인 'K-TWINS 카드'를 15일부터 출시한다.

이 카드는 고객이 체크카드 이용한도를 설정해 체크카드 이용한도 내에서는 체크결제가 적용되고 지정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용결제가 적용되는 신개념 복합 카드다.

'K-TWINS' 카드의 체크카드 월간 한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계좌의 일정잔액을 유지하면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잔액지정형을 개발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체크카드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체크·직불카드 이용금액으로 합산돼 소득공제 효과를 확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신용카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광주은행은 카드출시 기념 신규발급 후 4월 30일까지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DSLR카메라 1대, 테블릿PC 1대 및 기프트 카드(5만원)를 20명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 전시장 2층
| 편백나무 전시장 4층
| 친환경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히노끼, 중국 항목 루바 일체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발, 운기석 토탈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모보드
| 각종 내장재
• 쏘송각재, 미송각재, 합판, 스치로폼외 내장재 일체
• 방부목,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 협력사
• 우딘페이퍼몰딩, 필름합판, 문짝, 몰딩,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 강화마루, 한솔강화마루, 동화마루 대리점, (주)장가방
• 라파즈, KCC 석고보드 총판
• 레포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 목조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 히트상품 : 편백입체블럭, 편백보드마감재

11월 24일~27일까지 열렸던 KBC건축박람회에
광남종합목재건재상사(주)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백나무 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062)652-2935 · 2223 fax.062)651-5141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문제작 전국 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우리집 전기 내가 만들어 쓴다!!
에너지절약

이제 전기요금 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전기계량기가 거꾸로??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이젠 주방도 전기시대!

신축 기계획중인 고객님께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 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시스템 구성도

태양광 시스템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과 구조물, 전력을 변환시키는 장치엔 인버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전기는 자가용으로 우선 사용되며 남은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 역전송 하여 역전송 된 만큼 전기료 사용량이 차감되어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표)

기존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